

응답하라! 랜선 놀이 '공원' 자연 속의 '숨은 향기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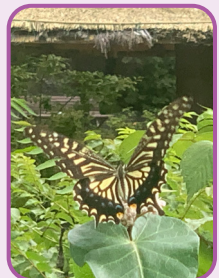


자연에는 다양한 향기가 나는 식물들이 있어요.
서울창포원에서는 어떤 향기를 맡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
그 중에서도 소개하고 싶은 '숨은 향기'를 찾아볼까요?



박주가리

암술이 꽃 밖으로 길게 뻗어 있고,
꽃 안쪽에 긴 털로 덮여 있는 꽃은
날아가던 나비도 멈추게 하는
은은하고 좋은 향기를 내뿜어요.
서울창포원 곳곳에서 꽃을 찾아보세요.



모과나무

열매는 겉이 울퉁불퉁하고 못생겼지만
달콤한 향기가 나요. 모과향을 맡으며,
다가오는 가을을 느껴보세요.
모과나무를 찾기 어렵다면, 열록 무늬에
반질거리는 나무줄기를 찾아보세요.



산초나무

줄기에 가시가 많고, 잎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으며, 잎에서 특유의 향긋한
향기가 나요. 이 향기는 모기가
싫어하는 향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산초나무 잎은 호랑나비 애벌레의
소중한 먹이에요.



산국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자라며,
줄기 끝에 노란색 꽃이 모여서 달려요.
꽃에서도 진한 향기가 나지만
잎을 손가락으로 살살 비벼서 손끝의
향기를 맡아보면 시원한 허브 향이 나요.





‘자연 속의 향기를 찾아라!!’

앞에서 소개한 사진 속 식물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식물 이름에 맞는 번호를 찾아 적어보세요!



박주加里:



산초나무:



모과나무:



산극:

만든이 : 공원여가과 코디네이터 김정희
도움 : 공원여가과 김윤희